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11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2月1日(土) 2011年 第694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崔 栄 信・編集人/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info@kccj.jp

「東日本大震災募金」要請 —第4回常任委員会で、 救援の方向性を協議—

第4回常任委員会(2011.3.29.名古屋教会)は、東日本大震災の支援の際、KCCJ 東日本対策委員会(社会委員会含む)・関東地方会対策委員会・全国教会女性連合会・青年全国連合会の4者が協議して執行することを決めた。

そして常任委員会後は、関東地方会対策委員会と総幹事との連席会議を開き、近いうちに(4月12日(火)か14日(木))、四者会議を開いて情報を共有し合ったうえ、確認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話し合った。

協議の結果、関東地方会対策委員会は、被災地の各教会及び信徒の支援と日本における宣教協約教団の各教区及び中会の支援すること。総幹事は、NCCJ 支援や<仙台キリスト教連合被災支援ネットワーク>支援をすること。社会委員会及び全国青年協議会は、ボランティア活動及び避難場所の支援することが決まった。

そのためには、<仙台キリスト教連合被災支援ネットワーク>のホームページ(<http://www.tohokuhelp.com>)を活用し、社会委員長は、各地方会の社会部と協力してボランティア活動を統括する。その際、被災地までの交通費及び宿泊について、<仙台キリスト教連合被災支援ネットワーク>のホームページを通して交渉した上、経費発生やむなしと判断されたら、<東日本大震災KCCJ 対策委員会>に請求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さらに、募金活用については、連席会議の席において集まった募金の配分を必要に応じて協議していくことにした。

(報告：編集部)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BANK)：三菱UFJ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BRANCH)：高田馬場支店
(TAKADANO-BABA)
- ・種類(SWIFT)：普通預金(BOTKJPJT)
- ・口座(A/C)：053-1615275
- ・名義：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관동지방회 동일본 대진재 —임직원회에서 동북지방 교회들의 현황보고—

지난 3월 11일(금)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더불어福島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아직도 일본은 슬픔과 불안 속에 있다.

이럴 때에는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이웃들의 아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동지방회 소속인 동북지방의 교회들이 입은 피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안정을 되찾아야 최종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3월 22일 임직원회에서 각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 보고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센다이교회 서동일목사는 지난 3월 19일 새벽에 메일을 통하여교회 상황을 알려왔다. 서목사에 의하면 13일(주일)에는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정리를 한 후에 영사관 대피소로 대피하여 교인들의 재입국을 도왔으나 통신이 두절되어 나머지 교인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한 센다이 교통은 마비가 되었으며,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영사관에서新潟県나 秋田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약 60여명의 교인들이 출국하였으며, 남아 있는 교인들은 영사관에 대피한 사람들의 식사 준비



仙台教会の壊れたエアコン

를 도왔다.

한편 교회의 모든 피해 상황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로 확인된 것은 교회 벽에 금이 갔으며, 스피커와 조명과 에어컨이 떨어지고,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 대한 안전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많은 교인들이 귀국함과 동시에 교인들의 물질적인 피해도 심각하여 교회의 재정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목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한국에 가서 피해 상황들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 왔다.

미토전도소(水戸伝道所)의 한재문 목사는 3월 19일에 관동지방회 카페와 임직원회를 통하여 자기들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피해상황을 전했다. 水戸伝道所도 약 50년이 된 건물이라서 훼손이 심해 출입이 금지되어 예배 처소로 이용하기가 힘들어졌으며, 교인들 대부분은 피난을 갔다. 그 중에 6명은 大阪까지 가서 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피난하였는데, 한목사는 그 과정에서 武庫川教会(이성우 목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지금은 세 가정이 남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으며, 앞으로의 교회 상황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岩手県에 있는 北上シオン伝道所の 용환웅 목사는 3월 20일에 소식을 전해왔다. 지진이 일어났던 3월 11일(금)은 총회가입 선교사와 신학생들의 연수회에 참석하였기에 예배당에는 사모와 2살 된 아기만 있었다. 용목사는 그 다음날에 大阪에서 신간선을 이용하여 동경으로 왔지만 동북지역의 교통이 마비된 관계로 가족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계속 동경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사모의 일기를 바탕으로 보고된 피해상황에 의하면 전도소의 창문과 그릇들이 부서지고 책장이 넘어져서 두 동강이가 났다고 한다. 전기와 전화와 수도가 끊어졌으며 교인들과의 연락도 두절되었다. 그리고 13일 주일에는 한 가정과 예배를 드렸으며, 14일(월)에 연락이 된 교인들은 방사능, 낙진, 여진으로 인한 공포로 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으로



避難生活をしている仙台教会青年たち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다고 한다.

사모와 아기는 18일(금)에야 동경으로 와서 용목사와 합류하여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였다. 용목사는 北上シオン伝道所에서 8개월째 사역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초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北上駅 주변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단장한 후에 일어난 재해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예배 출석인원이 13명에서 18명이었다.

미사와교회(三沢教会)의 전승대목사는 3월 21일에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목사 역시 선교사 연수회에 참석 중이었던 관계로 교회까지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총회 산하(武庫川教会、ハンサラン教会、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東京教会 등)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어 돌아갈 수



つくば東京教会の屋根と壁の亀裂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 年 4 月 25 日、創立 100 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02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 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 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関西韓国 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ス、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付き)		

있었다면서 감사하면서도 재해를 당한 여러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고 말했다.

山形ウリ教会의 이명신 목사는 교인들과 함께 많은 손상을 입은 예배당을 정리한 후에 仙台教会로 달려가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도왔으며, 동경에서 물자들을 싣고 동북으로 달려와 주기를 호소하였으며, 郡山伝道所는 3월 13일 주일에는 일본인 한 가정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20일 주일에는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박정근목사 가정도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황이라고 하였다(3월 31일來日).

그러나 임직원회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동경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의 일시 귀국으로 인한 교인들의 감소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 각 교회는 평균 약 60%-70% 이상의 교인들이 귀국하였으며, 유학생들은 약 80% 이상이 귀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귀국 예정인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관동지방회의 모든 교회는 당분간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은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동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회 소식들이 보고되자 관동지방회는 지난 3월 22일(화)에 열린 제 5회 임직원회에서 현임원단과 선교협력부와 사회부를 포함한 [대진재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총회와 협력하여 구재봉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관동지방회는 매년 4월 29일에 지방회 총회를 개최해 왔으나 동북지방 교회 교역자들과 총대들의 회복과 총회 참석 총대들의 편의를 위하여 총회 일정을 5월 7일(장소: 동경 한국 YMCA 강당)로 늦추어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매년 부활절에 실시해 오던 부활절 연합축제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련의 아픔들과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과 몸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치유와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믿음과 일본 복음화에 대한 사명은 흔들리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총회가 되어 나가기를 소원해 본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보고: 편집부)

<関東地方会> 「大震災対策委員会」(仮称) 発足と同時に「第1回被災地訪問」

去る 3 月 22 日(火)、関東地方会の任職委員会において、地方会の中に「大震災対策委員会」(仮称)が発足し、打ち合わせを行った。同委員会の構成は、地方会任員と伝道部長(林泰鎬牧師)、社会部長(金健牧師)、宣教協力部長(代行:金柄鎬牧師)である。早速、東京中央教会・金執事からの救援品(ラーメン)の申し入れがあり、韓聖炫、金根湜、金柄鎬、林泰鎬牧師が、教団・東北教区への慰問と救援品の伝達をかねて、3月 23 日(水) 仙台へ行って来た。

委員会の一行は、日本基督教団・東北教区(高橋和人牧師、片岡 謁也牧師)を訪問し、慰問挨拶し、在日



大韓基督教会ができる具体的な協力支援の申し込みをした。そして、教団の各教区や教団以外の諸教会からの支援要請があれば、今後も出来るかぎり協力することにした。

そして、仙台・総領事(金正秀)を訪問した後、新潟教会、山形ウリ教会、仙台教会を訪問したが、特に被災にあった仙台教会の執事宅を訪ね、津波被災の現状を把握した。今回、金大厦執事(東京中央教会、農心ジャパン社長)の協力をえて、ラーメンを仙台市、民団、教団・東北教区のそれぞれ約 1 万食づつ寄付することになった。第 1 回の訪問は、東北自



日本教会関係者と

不動産管理
アルカンシェル名駅
李 光 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 2-2-27
電話・FAX 052-451-7713 携帯 090-3578-7571
E-mail: kwangse.lee@nifty.com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愛**
有限会社
取締役社長 李 鍾 善 (名古屋教会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 1 丁目 965-1
TEL 0593-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 14-1
TEL 0564-31-8893(代)

自動車道の開通により 24 日(木)に東京に戻れた。そして、4月上旬には、2 回目の訪問を予定している。継続的な支援が継続されることを切に祈る次第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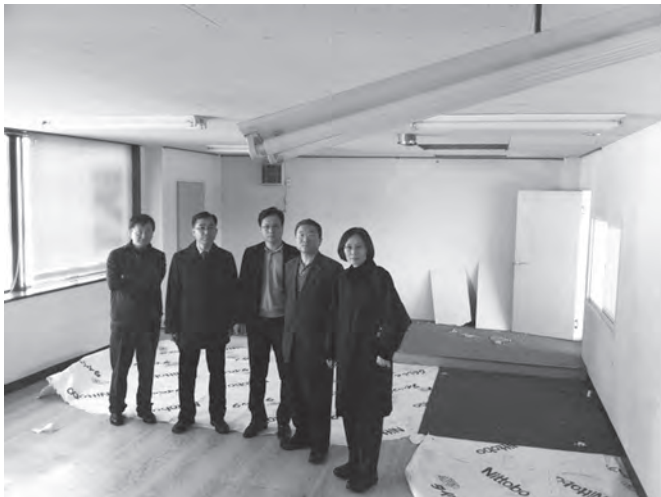
(報告: 韓聖炫)

関東地方会「大地震対策委員会」 「対策委員会」会合と第2回被災地訪問

関東地方会「大震災対策委員会」は、3月31日、総会の対策委員会との役割分担について総会事務所で会合し、これからの対応について協議した(参加者: 総幹事、金東洙、韓聖炫、金根湜、金健、林泰鎬、黄貞順)。

この会合では、関東地方会は傘下の教会・牧師宅、教会員の被害に対する現状を把握すること、各教会はその補償を具体的な項目、金額など算定し、地方会に報告すること、募金はこれを最優先とすること等を議論した。また、宣教協約にある教団・各教区の被害状況を入手し、これに対する募金を優先することと NCC、被災ネットなどに対する募金は総幹事が対応することにした。

そして翌日(4月1日、金)には、被災地訪問をした(参加者: 金東洙、韓聖炫、金根湜、林泰鎬、黄貞順)。その前日、韓国から朴正根牧師が一人東京にもどり、挨拶をしてから郡山に向かった。被災地訪問団は、日立教会、水戸伝道所、つくば東京教会を訪問し、慰労した。そして、つくば東京教会



水戸伝道所・聖具などを倉庫に移動したあとの

の礼拝堂は、専門家の診断が必要であること。水戸教会は、聖具備品を他の場所に移して、借りている礼拝堂は使わないことにしたことを聞き、日本基督教団大宮教会の松下氏に建物の診断を依頼した。

(報告: 韓聖炫)

제 12 회 총회 신학교 졸업식 총회장이 〈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고 축복

지난 3월 14일(월), 니시아라이교회(西新井教会) 예



배당에서 총회신학교 제 12 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김성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은 지난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희생된 유가족들과 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눅 5:1-11)을 봉독할 때에도 여진(余震)으로 인하여 예배당이 흔들렸지만 권영국 목사는 기도를 통하여 대지진으로 경험하고 목격함으로 인하여 할 말을 잃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동해 나가야 하는지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총회신학교 졸업식이 거행되게 되었음을 감사 드렸다.

이어서 총회장 최영신 목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계였던 빈 배(船)를 채워 주셨다. 그러므로 내 배를 비워서 주님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라], [경건을 연습하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기억하라]고 설교하였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므로, 매일 죄인 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라], [교회에서는 작은 자를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라]면서 일본 어디에서 목회를 하게 되든지, 바로 그곳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성현 목사가 졸업생과 수료생을 소개하였다. 박희환(西新井教会) 졸업생은 부산 동아대에서 조각과를 졸업하고, 동경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한 후, 2008년에 총회신학교 3년 과정으로 입학하여 졸업하게 됨과 동시에 大阪教会에서 전도사로 청빙되어 섬기게 되었다.

수료생 한택주(姫路教会) 목사는 전주대학 이공학부 전산학과와 神戸개혁과 신학교를 졸업한 후,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과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를

수료하고, 2010 년 총회신학교 1 년 연수과정에 입학하여 수료하게 되었다. 또한 한목사는 1999 년부터 2001 년까지 武庫川教会에서 전도사로 섬긴 후,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KAPC) 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 神戸東部教会에서 협력선교사, 2008 년부터는 姫路教会에서 협력목사로 섬긴 교회에서 목회한다.

이성우 목사 (교장) 는 이들 두 사람에게 졸업장과 수료장을 수여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교인들에게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성경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목회자, 언제나 낮아지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 달라고 훈시하였다.

또한 총회 신학교 이사장인 이광세 장로는 격려사를 통하여 2011 년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음을 총회장 이하 모든 교회의 책임과 아픔임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에게 양을 위하여 죽을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며, 선배 목회자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키워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일류 목회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축사를 맡은 종간사 홍성완 목사와 관동지방회 회장인 김동수 목사는 두 사람의 목회적 장래를 위하여 축하와 축복을 하였으며, 정연원목사의 축도로 엄숙한 가운데 졸업식은 은혜롭게 마쳐졌다. 졸업생과 수료생의 목회적 성장과 교회의 발전을 통하여 재일한국인과 일본 복음화에 기여하는 길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한다.

(보고 : 편집부)

「宣教課題としての外国人住民基本法」を主題に 外キ協が川崎で全国協議会・全国集会を開催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は 1 月 20 ~ 22 日、川崎市で第 25 回全国協議会を開催した。各地外キ連と各教派・団体の代表者 40 人 (KCCJ から 8 人) の他、韓国基督教教会正義と平和委員会委員長、韓国教会在日同胞人権宣教協議会事務局長が参加した。

神奈川外キ連代表の登家勝也牧師による「開会の祈り」に始まった一日目は、佐藤信行氏 (RAIK 所長) の発題「改定法と外国人住民基本法」を受けて、2012 年 7 月に実施が予定されている「改定」入管法・入管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の問題点を共有し、外キ協がめざす「外国人住民基本法」の中心テーマを確認した。

夜は公開セミナーとして、「青年の旅・2010」の報告の後、在日二世の作家・朴慶南氏が「サラムとサラン——在日／ザイニチ／日本人、思いはつながる」と題して講演。

二日目は金健牧師 (川崎教会) による「朝の祈り」に続いて、外キ協事務局による発題「日・韓・在日教会の共同課題」を受け、昨年 7 月に開催した「韓国強制併合 100 年／在日 100 年」日・韓・在日教会シンポジウムで合意された共同課題をどのように実現していくのか協議した。

午後、聖書研究のあと、「外キ協の到達点と、今後の新た

な展開に向けて」について、来年 (2012 年) 7 月、外登法の廃止と改定 3 法の実施を前に、外キ協の組織強化と新たな出発をめざし、①外キ協運動 24 年間の到達点、②今後の担い手の育成、③今後の運動課題などを協議した。

二日目の夜から三日目にかけての全体協議では年間活動計画を決め、共同代表に洪性完総幹事と李清一牧師ら 5 人を選出。最後に、洪性完総幹事による「本物と偽り」(エレミヤ 23:16 ~ 32) と題する閉会説教で、3 日間の協議会を終えた。

◇◆◇

1 月 22 日午前 10 時 30 分から川崎・カトリック貝塚教会で、主題「平和は多民族・多文化共生のアジアから」のもと、第 25 回「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者集会」が開催され、在日コリアンやフィリピン人なども含め約 80 人が参加した。

最初に笹川紀勝・明治大学教授が「安重根の平和思想の今日的意味」と題して講演。1910 年の韓国強制併合に至る日本の侵略、それに抗しての安重根の伊藤博文射殺、安重根の信仰と平和思想などを熱く語った。

次に、小学生のレジーナさんと、フィリピン人のアルメラさんによる証言。いずれも日本社会の「厚い壁」を語るものであった。松浦悟郎司教によるメッセージは、「絶望するには良い人があまりに多い」と題して、絶望と希望の狭間でもがきながら、希望に連なる生き方をめざそう、と語られた。

最後に、秋葉正二牧師 (外キ協事務局長) が集会宣言を読み上げ、今年 1 年間の取り組みを参加者とともに確認した。(報告 : RAIK)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 全国キリスト者集会宣言 (抜粋)

グローバル化の加速度的な進行のもと、いま世界には超えがたい経済格差が形成され、非常に多くの人びとが国境を越えての流浪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特に少子高齢化時代を迎えた日本社会は、労働人口の減少にとともに、外国人を隣人として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おかれている。既に日本社会には 220 万を超える外国人住民が生活し、「多民族・多文化共生」はきわめて具体的な課題となっ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社会に真の意味での「多民族・多文化共生」がすでに実現しつつあるとは私たちには思われない。現実には、外国人の人権を制限して管理を強化し、分離・排除を進めるいびつな制度が形成されつつあるからだ。2004 年の法務省ホームページにおける匿名通報制度、2007 年に実施された外国人雇用届出制、そして入国・再入国時における顔写真・指紋情報登録制度などにより、この社会に住む外国人住民の生活はますます息苦しいものとされてきた。そして、2009 年 7 月には外国人登録法の廃止と入管法・入管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の改定が国会で可決され、新しい外国人在留管理制度のための準備が進められている。

さらに、日本は人種差別撤廃条約・子どもの権利条約等の

国際条約を批准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外国人・民族的マイノリティの子どもへの差別に対する取り組みは遅々として進んでいない。排外的風潮が高まる中、直接的・間接的なヘイトクライム（憎悪犯罪）が野放しにされている。こうした現状に対して、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は懸念を表明し是正を勧告している。

私たち外キ協は、1987 年の結成以来、一貫して外国人登録法の非人権性を訴えかけ、その抜本的改正を求め続けてきた。これまでの私たちの運動の到達点は、歴史責任を問う歩みの中で、共に生きることを願い、さまざまな国籍やさまざまな文化を持つ隣人と出会い続けてきた。日本人キリスト者は在日コリアンと出会い差別の実態について「知らなかった」自分を問い、在日コリアンのキリスト者は日本人と出会い直す中で、自らの「痛み」を声に挙げ日本社会の一員として日本人と共に生きていこうとすることの大切さを知らされた。そしてこのキリスト者のつながりは海を越え、韓国のキリスト者とも出会い続けてきたのである。外キ協運動は 24 年間、隣人との出会いの中で、常に自らを問われ、新しくされ、隣人の「痛み」と歩みを共にしようとする思いに突き動かされてきた。お互いの心の中にある壁を少しずつ乗り越えようとしてきたこと——そこにこそ、私たちの掲げる「多民族・多文化共生」の内実はつくりだされてき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協働」の営みは、外国人住民が増加し多民族化するこれからの日本社会においてますます必要な経験となっていくだろう。

私たちはまた、1980 年代から 90 年代にかけて、さまざまな国籍条項の撤廃にとりくみ、「機会の平等」の実現を目指してきた。しかし、外国人の就業統計は、今日もなお外国人住民の職業分布が固定化されており、外国人住民は構造的な貧困状態から抜け出せていないことを明確に物語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ような反省に立ちながら、「機会の均等」ばかりでなく、「結果の平等」、「社会経済的領域での格差解消」のための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それは私たちのすぐ隣に住む外国人住民を、地域社会の担い手として、共に生きるパートナーとして迎え入れ、彼らの生きる権利を保障する制度をつくりだすことである。私たちの掲げる「外国人住民基本法」の理念は、ここにこそ意味を宿すのである。

私たちは 2010 年に、「韓国強制併合」から 100 年を迎えた。植民地支配と、戦後の差別と暴力に満ちたこれまでの歴史を乗り越えて、私たちは「共に生き、共に生かされる社

会」を目指したいと、切実に願うのである。

「多民族・多文化共生」——私たちはこの言葉を決してあきらめない。運動の途上には困難が多く、今日の日本の状況は絶望的であ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私たちはキリスト者として苦難をも誇りとする。「私たちは知っているのです。苦難は忍耐を、忍耐は錬達を、錬達は希望を生むということ。希望は私たちを欺くことはありません。私たちに与えられた聖霊によって、神の愛が私たちの心に注がれているからです」(ローマ 5: 3～5)。私たちはこの言葉を信じ、この地における「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の実現を求めて何度でも声を上げ続けることだろう。キリスト者として、この地に小さくされている隣人の「痛み」とともに。

＜私たちの取り組み＞

1. 「外国人住民基本法（案）」の制定運動への理解と協力を、キリスト教界、日本社会に広く呼びかけていく。
2. 来年、2012 年から実施される改定入管法・入管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に反対する取り組みを強力に推進していく。
3. 「韓国強制併合」100 年／「在日」100 年を憶えて、日・韓・在日教会の歴史と現在を検証する。とくに「日本の植民地支配と教会」の実相を調査・記録していく。
4. 『＜新版＞歴史をひらくとき』の発行を目指し、キリスト教学校と神学校における人権教育・歴史教育を推進していく。
5. 外登法問題国際シンポジウムを継続し、日・韓・在日 3 教会共同の取り組みを推進する。さらに日本の歴史責任を踏まえて、沖縄教会や台湾教会などとの共同プログラムも検討していく。
6. 難民・移住労働者問題キリスト教連絡会など在外外国人の人権にかかわる教会関係組織との共同プログラム、各地外キ連での難民・移住労働者・移住者支援のプログラムを推進していく。
7. 「青年の旅」を継続し、各教派・団体の青年育成プログラムとの連携を図る。
8. 国内人権機関の設置運動、人種差別撤廃法の制定運動、国際人権活動などにおいて、他の人権 NGO、市民団体と共同して推進していく。

학습과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 소책자

(学習・洗礼・入教 教育小冊子)

학습・세례・입교 교육은

준비교육 소책자를 이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한국어 일본어 겸용이네!
- 현대어 표현으로 알기 쉬워요!
- 글씨가 크고, 내용도 충실해요!
- 신청: 总会事務局 (03-3202-5398)



豊かな味はころまで豊かにする。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Fax. 03-3353-6200

創世記連続講解 (2)

尹宗銀 牧師
(横浜教会名誉牧師)



創世記 2 章

創世記 2 章の主題は『人類の創造と生活』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5 項目に分けられる。本章から人類歴史が始まる。即ち、人間の歴史の発端である。本章は 1 章の創造史の不備なことを補充すると同時に 3 章に対する序論とも言える。

① 1-3 節：神は第七日に御自分の仕事を完成され、安息なさった。

② 4-7 節：人類の創造を再説明された。

③ 8-15 節：人類がエデンの園でどのように生活したか。そのエデンの状況と人間の生活状態を説明している。

④ 16-17 節：人類に対する神の禁令、即ち、「園のすべての木から取ってたべなさい。

ただし、善悪の知識の木からは、決して食べてはならない。食べると必ず死んでしまう。」

⑤ 18-25 節：人類の新しい家庭生活等がしるされている。

人類は六日に創造され、即時に神の安息に与る。人間は初めから安息に与るのは功なくして恵まれるという新約の祝福を示された。このような安息にも罪が入る後は神の安息が破壊され、同時に人間は安息に与る自由を失ってしまった。従って再び贖罪の業がはじまった。即ち、罪によって破壊された創造の御業を完成しようとされた。ここで聖なる父の業が完成され、十字架によって聖子の業が完成し (ヨハネ 19:20)、未来の聖霊の御業が完成するであろう (黙 21:6)。

人間は神の命の息 [the breath of life] をその鼻に吹き入れると生きる者となった。それゆえに人間の生命は神から受けたものと (使 17:25)、神によって起居動作することを示された。従ってこの時に靈魂が創造されて神と共に交わるようになった (ヨハネ 3:7)。エデンから流れる四つの川は、聖霊を受けた信者たちの霊的な生活を描写している (ヨハネ 7:37)。アダムとエバ [Eve, life-giving] の関係は、キリストと教会の関係を模型したものである。

創世記 3 章

創世記 3 章の主題は、『人類の堕落と救い』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5 項目に分けられる。本章は、人類の犯罪と神の人類救済に対する記事である。人間は華麗な祝福の環

境の中にありながらも堕落したのである。犯罪の責任は環境の如何にあるのではなく、罪を犯す人間自身にあるのを学ぶのである。聖書の歴史を分ければ大体五時代になる。1. 無罪時代、2. 良心時代、3. 律法時代、4. 恩恵時代、5. 正義時代等である。

以上の各時代の終りには必ず審判をもって終わっている。

① 1-7 節：本章は、最初時代の人類堕落に対する審判である。堕落の原因はサタンの侵入と人間の接線対話によって始まっている。サタンは先ず聖書の靈感に対して質問した。神は『人が園のすべての木から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と言われたが、蛇は言葉を変えて女に言った。『決して死ぬことはない』と。その次には偽りの福音で代用して、『それを食べると、目が開け、神のように善悪を知るものとなることを神はご存じなのだ』と。

サタンの誘惑に対するエバの答えは、神の言葉を悪用して、『触れてもいけない』と付け加えた。次に、神の言葉を削減して各種は削除してただ『食べることが出来る』言い、そして縮小として『必ず』を落として『死んでしまう』と言った。以上のように、サタンの三重の狡猾と人間の三重の無知によって人類の重大な結果をもたらした。

② 8-13 節：『女が見ると、その木はいかにもおいしそうで、目を引き付け、賢くなるように唆していた』(6 節)。これはキリストに対するサタンの誘惑と比較する時、肉の欲、目の欲、生活のおごりである (ヨハネ 2:16)。始めのアダムは失敗したが、第二のアダム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は勝利した (ルカ 4:3-11)。

③ 14-19 節：主イエスが伝道の初めに同じ誘惑から勝利されたことは、サタンの手中から人類を救い出す第一の順序とも言える。罪を犯した人間はいちじくの葉をつづり合わせ身を隠した。神がいない木の間にはそれが必要だったかも知れないが、神の眼前には一枚の価値もない。このように罪は神と人との間を隔離させた。しかし神の愛は罪人を探しておられる (ルカ 19:10)。

④ 20-21 節：アダムはエバに、エバは蛇にそれぞれ罪の責任を転嫁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義を立てようとした。しかし神の公義と審判は彼らの頭の上に落ちた。罪人は必ず死ぬと言う鉄則として死の宣告を下した。『怒りのうちにも、憐れみを忘れない』(ハバ 3:2)。神はすぐさまに救いの約束を与えられた。即ち、女は子孫に対する予約とその証拠として皮の衣を作って着せられた。

⑤ 22-24 節：エデンより追放される。ここから失樂園が始まる。以下は失樂園の歴史である。

「第 12 回女性のための聖書セミナー」 全国教会女性連合会主催

2月8(火)～9日(水)、ホテルクライトン新大阪にて全国女性会の「第12回女性のための聖書セミナー」が開催された。主題は『どん底からの出発・移民女性の信仰』で、金恵善牧師(UMC スクラントン女性指導者センター事務総長)を講師として招き、全国から85名が集まった。

開会礼拝は、金貞姫会長の司会ですすめられ、金必順牧師が「解放に導く選択」(ルカ 10:38-42)との題目で説教し、鄭仁和牧師が祝祷をした。最初の講演は、「命の水を得るために」(ヨハネ 4:7-30)という題で行われた。金牧師は、サマリヤの女とイエスとの会話を通して、質問し関心をもつことの必要性、そして私たちも、サマリヤの女のようにイエスに出会って得た解放感と喜びをすばやく他の人と分かち合うことの大切さを語った。その後、参加者はペアを組んで意見を出し合い、全員の前で相手の考えを発表した。続く8班に分かれた分団討議では、それぞれ信仰の疑問や、家族や人生の悩みなどをにぎやかに分かち合った。



第2回目の講演では、「神の国をもたらすために」(ルカ 15:8-10)と題して、銀貨10枚をもっていた女と同じように、私たちもはじめは神から完全な賜物と恵みをもっていた。各自が与えられた賜物を数える作業を通して、忘れていた自分の特性や情熱にあらためて気付くことができた。また、なくした銀貨を探すため灯り(イエス・キリスト)をつけることでほこりや捨てるべきものも見え、見つけるまであきらめずに探し、見つけたときは友人や隣人と共に喜び合う、そのような女性会にしようと語りあった。

晩祷は、趙宣道神学生が「雄雄しく強く」(コリント 16:13)と題して証をし、主の祈りで一日目のプログラムを終えた。

二日目の朝祷会は、李春女神学生が「赦された喜びに満ちた

れて」(マタイ 18:21-35)と題してメッセージを語った。

この二人の神学生には、全国女性会が一年にわたり奨学金援助と祈りを続けてきた。彼らの今後の活躍と働きを、これからも見守り続けてゆきたい。

第3講演では、「私は何者?」(ヨハネ 1:19-23)と題された。洗礼者ヨハネは、自分の強大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語るのではなく、「私は荒れ野で叫ぶ声である。『主の道をまっすぐにせよ』



と」自己紹介した。私たちも自分を紹介するとき、これからの自分の未来の方向を言葉に出して準備したい。また、自分の人生が豊かであるときには、隣人にもイエスを伝えられる。私たち「おばさん部隊」が一つになればできないことはない、と熱く語られた。

全体討論では、参加者全員が目を輝かせ、それぞれの意見を発表し、女性達の無限のパワーを感じたのは私だけ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

閉会礼拝は、崔金順副会長の司会のもと、崔春子牧師が、「私はあなたを孤児にはしない」(ヨハネ 14:15-24)との題目で説教し、金恵善牧師の祝祷をもって感謝とめぐみのうちにすべてのプログラムを閉じた。

「聖書セミナー」とは言え、金恵善牧師は多くの映像や音楽、そして祈りの体操(!?)も取り入れて、楽しみ、感動しながら学んだ、あっという間の2日間であった。プログラムが終わり、参加者は皆古い殻を脱ぎ捨て、身も心も荷物も軽くなって、颯爽と家路に向かって行った。

(報告: 崔美恵子教育局長)

お詫びと訂正 前号の3面の広告のタイトルは「アカンセル」ではなく、「アルカンシェル名駅」に訂正し、お詫び申し上げます。

2011 年度全国長老研修会開催要項

- ・日 時: 2011 年 7 月 17 日～18 日(主～月)
- ・場 所: ホテル・クライトン新大阪
- ・主 題: 長老のあり方—総会の未来をひらく—
- ・対 象: 長老(夫婦同伴)、全国女性会役員
- ・会 費: 1 名 16,000 円、夫婦同伴 29,000 円、1 日出席 5,000 円(1 食付)

総会神学生 奨学金申請募集

総会神学生として承認後、1 年間を経過した方は、奨学金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総会事務局に、申請用紙及び問い合わせをして下さい。

- ・金 額: 年額 200,000 円
- ・期 間: 1 年間
- ・必要書類: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総会神学生認定書(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会長承認書
- ・提出先: 総会事務局(03-3202-5398)
- ・締切日: 2011 年 4 月 30 日必着